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의 지역정착과 사회연결망*

염미경**

국문요약

이 논문은 산업화시기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면서 어떠한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이 제주에 정착하면서 지역집단화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연구방법과 함께 1세대 이주자들, 1.5세대와 2세대 향우회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출신지를 떠나 새로운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1세대 이주자들은 자신의 출신지와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또는 지연망을 통해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면서 정착지에 적응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근 들어 향우회의 세대교체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향우회 집행부가 세대교체되면서 향우회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향우회들은 각종 행사에서 참여와 단결을 강조하고 청년회를 기구화해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정착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

* 이 논문은 2017년 6월 23일 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자로서 조언을 해주신 이영권 선생님과 세 분의 논평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제주대학교 교수

는 활동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제주지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주제어 : 산업화, 지연망, 향우회, 이주민, 제주

I. 머리말

제주는 1987년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을 전후해 인구유입이 급증하면서 2013년 8월 인구 6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657,083명을 기록하였다(행정안전부 자료, 2017년 12월 31일자 기준). 특히, 2010년 전후부터 국내의 타 지역에서 제주로의 이주는 신이민시대로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주민들¹⁾이 증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당국은 2014년 4월 귀농귀촌, 다문화, 외국인 등을 포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오다가 2017년 7월 20일부터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지원 중심에서 제주로 이주해 정착한 이주민들과 기존 주민들 간의 상생협력 공동체 조성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²⁾.

그런데 타 지역에서 제주로의 인구유입 현상은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 이주와 1960년대

1) 인구이동은 두 지역 사이에서 일어나며 단위 지역은 크게 국가와 국가 내 지역의 둘로 나눌 수 있는데(권태환·홍두승·설동훈, 2006: 283), 이 논문에서는 국가 내 지역 간 이동에 주목하며, 이렇게 해 유입한 사람들을 이주자, 이민자, 정착주민 등 여러 용어로 지칭하지만 이주민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는 이화진(2016: 7-8)을 참조 바람.

2) 제주도행정당국은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2018-2021)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산업화와 감귤산업의 성장 및 관광개발 등으로 제주에는 이미 인구유입을 경험한 바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 이 글은 이러한 기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대적 의미의 이민시대를 열었던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자원과 연구 방법

1. 이론적 논의

사회연결망은 인간집단 등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연결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출신지를 떠난 사람들이 출신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로 친밀과 상부상조를 위해서 향우모임 등에 참여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킴을 말한다(강경주, 2012: 25). 사회연결망은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확산되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회자본이다.

콜만(Coleman, 1988: 100-101)은 사회자본을 “조직집단 내에서 공동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사회자본은 사회연결망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자원 그 자체(Bourdieu, 1986), 혹은 그러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Lin, 1999)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와 관련해서는 유석춘·장미혜(1999, 2003)와 유석춘·장미혜·김태은(2000), 김용학(2003)과 이재열(1998, 2001)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유석춘·장미혜

3) 이를 배경으로 하여 1987년 당시 제주는 50만 시대를 열었고, 2013년 8월 인구 60만 시대를 맞이한 후 현재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는 이창기(1999)와 염미경(2015)을 참조바람.

(1999, 2003)와 유석춘·장미혜·김태은(2000)은 한국사회만이 갖고 있는 사회자본의 풍부한 원천으로서 다양한 연고집단이 지닌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인 반면, 김용학(2003)과 이재열(1998, 2001)은 연고집단의 특성상 귀속적인 지위를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한 결속력 속에 감추어진 내부규율과 동조화의 압력이 있을 수 있어 공적 신뢰를 낮출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폐쇄성과 보수성을 갖고 있음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연구자들이 사회연결망과 사회자본에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특정 관계를 통해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와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Mitchell, 1969).

사회연결망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이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 지원 형태와 만족도 등 개별 행위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다(Weiss, 1974; Ong and Ward, 2005). 그리고 이주민의 사회연결망에는 혈연과 학연, 지연에 의한 사회연결망과 현지 토박이와의 연결망으로 나뉘볼 수 있지만 산업화시기 이주민들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 논문에서는 주로 전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경제적 동기로 자신의 출신지역을 떠났던 산업화시기 이주민들의 경우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것이 거주지선택과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정착, 그리고 사회·심리적 안정일 것이다. 사회연결망에 대한 연구들 중 사회연결망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이 노동시장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데, 즉 취업에서 연결망을 통해 활용한 자원이 효과가 있었다는 연결망의 효과를 다룬 연구(Lin et al., 1981; Hsung&Sun, 1988; Masden & Hulbert, 1988; De Graaf & Flap, 1988; Meyerson, 1994; Lee & Brinton, 1996; Bian & Ang, 1997), 연결망으로 인해 직업적 지위, 승진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Lin, 1999)가 있다.

대체로 사회연결망은 이주민들의 이주와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데,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이주민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

주한 동향인과의 연결망이나 지원은 이주민들이 거주지나 일자리 찾는 과정에 인큐베이터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심리적 안정도 중요한데, 집합적 삶을 중시하는 한국인에게 있어 연결망은 지역집단의 성격에 관계없이 개인과 연결된 타자들의 집합으로서 인맥 형성의 중요한 준거점이자 원초적 유대감을 형성시켜주는 자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최재석, 1979; 이재열·남은영, 2008: 184).

실제로 낮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사회연결망으로서 연고를 잘 활용하기 위해 정착 초기에 특정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Faist, 2000; 염미경, 2011, 2015; 염미경·한상희, 2014). 자신의 연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그 연결망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결망까지 활용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집적해 거주함으로써 낮은 환경에 적응해가는 데 필요한 자원인 상호호혜성, 연대성, 동향인이나 동족에 대한 배려, 정보망 등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정착 초기 동족 혹은 동향 집단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주민들의 집중거주지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 제주를 사례로 해 산업화와 지역개발 붐 속에서 제주로 이주한 호남인들이 제주지역 내에 형성했던 집중거주지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황석규(1985), 염미경(2011, 2015)이 주목할 만하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1) 배경적 논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는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민 수용소와 군사훈련장인 육군훈련소가 제주에 설치되면서 한국전쟁기 내내 피난민의 유입지 역할을 하였다(양정심, 2009; 박찬식, 2010). 제주의 피난민은 87,000명이었고 그 가운데 5개 수용소에 집단 거

주하는 피난민은 67,000명에 달했다(양정심, 2009: 132). 1950년 7월 16일부터 제주·한림·한림·화순 항을 통해 1만여 명의 피난민이, 그리고 1951년 1·4후퇴 후 북한주민들을 주축으로 수만 명의 피난민이 제주로 왔는데, <표 1>에 의하면 피난민 수는 1951년 1월 3일까지 16,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1월 16일에는 87,000여 명, 5월 20일에는 148,000여 명에 이르렀고, 이는 제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었다(양정심, 2009: 130). 피난민들은 1951년 6월 6일 피난민협회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난민과 토착제주지역민 간 갈등이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 피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제주지역은 주택난이 가중되었고 식량을 비롯한 구호물자의 부족, 식수난으로 인해 제주는 포화상태였으며, 피난민과 토착지역민 간 이념적 갈등도 있었다(양정심, 2009: 132-135; 박찬식, 2010).

〈표 1〉 한국전쟁 직후 제주인구 현황

시기	제주도민	피난민	총계
1951. 1. 16	248,867	87,000	335,867
1951. 4. 8	248,867	71,228	320,095
1951. 5. 20	238,867	148,000	396,897
1951. 8. 25	299,715	51,040	352,755
1951. 10. 15	299,715	31,344	331,059

자료: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조사자료; 양정심(2009: 130)에서 재인용

이렇게 하여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제주에 온 피난민 중 일부는 제주에 정착하였다. 해방직후의 월남민, 한국전쟁 때 제주에 온 피난민, 1·4후퇴 때 온 피난민 중 제주에 정착한 이북도민 1세대는 제주지역민으로서 자리매김해 있다(문순덕·염미경, 2014; 염미경, 2015: 56).

이처럼 한국전쟁 직후 피난처 역할을 했던 제주는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과정에 제주가 편입되면서 또다시 인구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제주는 지역개발 붐이 일었고 감귤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력을

필요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주는 급속한 인구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상도 매우 복잡해졌다(염미경, 2015: 62; 이창기, 1999: 15-16).

1960년대 이후 제주의 출생지별 인구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1960년 95.4%, 1970년 93.7%, 1980년 88.8%, 1985년 86.9%, 1990년 84.9%로 제주 출생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제주 이외 지역에서 출생한 제주지역민의 출생지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가장 많다는 점인데(이창기, 1999: 91-93), 특히 1970년과 1980년에는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타 지역 출생자의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는 제주지역개발사업의 노동력을 광주·전남지역에서 충원한 결과이다.

〈표 2〉 제주지 이외 지역 출생 제주지역민의 출생지 분포

(단위: %)

연도	타도출생자계 (실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기타
1960	100.0 (12,912)	4.2	3.2	1.1	0.8	1.4	2.4	29.9	2.1	8.0	46.9
1970	100.0 (26,803)	6.8	4.0	2.4	1.8	4.4	6.0	42.2	5.4	11.9	15.1
1980	100.0 (51,017)	8.8	3.9	3.4	2.3	4.9	5.4	42.9	5.9	12.0	10.6
1985	100.0 (64,018)	11.4	5.5	3.3	2.4	5.2	5.7	37.0	7.0	15.0	7.6
1990	100.0 (76,356)	11.7	6.1	3.5	2.2	5.8	5.2	34.8	7.9	17.3	5.5
1995	100.0 (80,314)	14.2	8.1	3.7	2.4	5.1	5.1	29.3	7.7	18.3	6.1

주: 기타에는 북한 출생자와 외국 및 미상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이창기(1999: 92)에서 재인용(각 년도 국세조사보고서).

그러나 1980년 전후부터는 이러한 유입인구의 지역분포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광주·전남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인구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는 대신 서울지역이나 부산·경남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

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표 3> 참조). 즉 1990년대 초반에는 광주·전남지역 출신 비율이 10% 정도 떨어지고, 대신에 인천·경기지역이 15%를 상회하면서 제주 인구의 주요 유입지로 부상하게 된다(이창기, 95-96; 염미경, 2015: 64-65; 염미경, 2016).

〈표 3〉 제주 유입인구의 지역분포

(단위: %)

연도	타도출생자계 (실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기타 (외국)
1965-70	100.0 (14,925)	15.7	5.7	3.1	1.5	4.3	5.4	36.8	8.5	16.7	2.3
1970-75	100.0 (20,056)	19.9	6.7	3.5	1.4	3.1	4.5	38.1	4.5	16.6	1.7
1975-80	100.0 (21,474)	23.4	5.2	3.0	1.2	4.0	3.4	28.5	6.5	16.4	8.4
1980-85	100.0 (25,421)	30.6	8.8	3.0	1.3	3.6	3.5	17.4	6.7	22.5	2.6
1985-90	100.0 (29,107)	29.0	10.3	3.6	1.1	4.2	3.1	15.9	7.5	23.8	1.5
1990-95	100.0 (32,124)	28.4	15.3	2.3	1.5	2.6	3.3	10.3	5.9	25.5	4.9

자료: 이창기(1999: 94)에서 재인용(각 년도 국세조사 보고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까지 제주의 인구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제주4.3과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관광개발 및 감귤산업의 성장이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제주로의 인구유입과 이로 인한 제주의 인구변동은 한국전쟁과 제주가 한국의 산업화과정에 편입되면서 지역개발 붐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1990년대 초까지도 지속되었다(이창기, 1999; 염미경, 2015).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은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주민들은 당연히 지연(地緣)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즉 한국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혈연공동체와 지연공동체의 강한 영향력 하에 연고를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는 전통이 존재했고, 이에 따라 귀속적 특성에 기반을 둔 모임이 사회생활의 주된 준거가 되었다(이재열·남은영, 2008: 182). 일자리를 찾

아 출신지를 떠나 타지로 온 이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향우들을 만나 유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들은 타지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향우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작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기를 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이주민들의 결집체로서 향우회를 결성하게 된다(강경주, 2012: 1).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산업화시기 자신의 출신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 그것도 제주라는 섬 지역에 적응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연고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을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1960년대 산업화와 지역개발 붐 속에서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며, 이 시기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한 사람들은 제주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정착해나갔을까? 이 논문은 이러한 기본 질문에서 시작하여 산업화시기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지역에 안착해 살아가는 과정, 즉 지역정착을 사회연결망의 동원과 지역집단으로서 세력화해나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산업화와 지역개발 붐 속에서 제주로 이주한 현대적 의미의 제주이주민이다. 제주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시기에 관광개발과 감귤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함으로써 1980년대까지 서울, 부산과 함께 대규모 인구유입을 경험한 지역으로, 산업화시기 이주민들 중 자신들의 생활터전이었던 출신지역을 떠났던 대표적인 이주민집단이면서 대부분 농어촌출신인 관계로 집단주의, 연고주의, 친분주의와 같은 전통적 농어촌공동체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한국의 산업화시기 지역 간 인구이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⁴⁾.

우선 제주는 국가 중심부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는 변방으로서 지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5)을 참조바람.

리적 협소성과 자원의 한정성 그리고 제주4.3을 겪으면서 역사적 어려움이 많았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피난민과 포로수용소, 육군훈련소라는 후방의 역할을 담당해 피난민의 유입이 두드러진 지역이었으며,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농이 본격화하던 시기 정부 주도의 관광개발과 최대 농산물인 감귤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함으로써 농촌근대화 열풍이 불었던 대표적인 지역 중 한 곳이 제주지역이다.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호남의 농어촌, 특히 지리적으로 근접한 광주전남지역 사람들에게 제주는 서울, 부산 등과 함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으로 인식되었다(염미경, 2015). 다음으로, 산업화 시기 제주의 출생지별 인구구조에서 제주 이외 지역에서 출생한 제주지역민의 출생지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 고려되었다(앞의 <표 2> 참조).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이 논문은 문헌자료와 심층면접자료를 활용하였는데, 문헌자료에는 향우회 발간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및 통계자료, 행정기관 및 인터넷 검색 자료가 포함되었다. 심층면접대상자 선정은 지역의 호남 향우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주요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는 1차로 2011년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는 1960년대 전후부터 1970년대 초반에 제주에 온 1세대 이주민들에 대한 생애사 중심의 심층면접자료가 집중적으로 수집되었다. 2014년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2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2차 조사 시의 심층면접대상자는 제주 이주1세대 17명⁵⁾, 제주지역 지역향우회 관계자 20명 등 총 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5) 이들의 생업을 보면 상업 종사자 9명,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 4명, 공무원 3명, 회사원 1명으로 상업 종사자가 많다. 이 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는 문순덕·염미경(2014)에 수록되었음을 밝혀둔다.

Ⅲ.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의 지역정착과 사회연결망

1. 제주이주와 사회연결망

제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개발과정에서 지역변동을 경험했으며, 제주 출생자들에게는 떠나고 싶은 곳이었던 반면,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제주가 편입되어 지역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제주는 전라도 등지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땅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에는 지리학적 여건과 해상교통이 있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⁶⁾. 따라서 처음에는 배편 이동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이 늘어나게 된다.

이 시기 제주항에 도착한 호남인들은 제주이주 초기에는 저변층 일용노동자로서 제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제주이주민들의 이주 동기는 경제적 사정, 사회적 범법 행위자, 그리고 투자 등이었으며 이 논문의 조사대상 호남인들의 이주 동기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산업화시기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간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그렇듯 제주에 온 호남사람들 대부분도 최극빈 상태에서 이주지로 제주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문순탁·염미경, 2014).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논문의 조사대상자들은 경제적 빈곤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 실직이나 사업실패, 고향을 떠나야 하는 개인적 이유 등으로 제주이주를 선택하였음을 심층면접 결과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의 조사대상 호남인들은 출신지역과 제주 간 거리가 가까워서, 1960년대 이후 제주개발과 감귤산업 성장으로 제주에 일거리가 많아서 이주하게 된 경우, 1960년대 제주로 이주하기 전에는 고향에서 부모를

6) 전라도에서 제주로 가는 뱃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황경수(2004: 167, 264), 주희춘(2008: 301-302), 염미경(2015: 65-66)을 참조바람.

도와 농사일 하다가 단신으로 제주에 정착한 경우, 개인적으로 고향에서 살기 힘든 일이 있어 무작정 멀리 떨어진 제주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목포 등 전남지역에서는 제주에 가면 일자리도 있고 노동을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먼저 제주에 이주해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 쉽게 들어온 경우도 있다. 이들이 이주할 당시만 해도 호남보다는 제주의 경기가 좋다고 알려져 일거리를 찾아 제주에 온 경우가 대부분이며(문순덕·염미경, 2014: 72; 염미경, 2015: 69), 무일푼으로 제주에 와 일용직에서 제주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당시 호남지역은 2-3년 연속 흉년이 들면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비교적 근거리에 있었고 배편이 있었던 제주로 오게 된다.

이렇게 하여 제주에 온 호남인들 대다수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갖고 있던 연결망을 통해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하고 제주에 와 정착해나간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이 논문의 조사대상자들과의 심층면접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이주민들 중에는 제주항에 도착해 제주항 부근에 정착하려 했으나 제주항 부근 전라도사람들의 집중 거주지가 포화상태에서 제주항에서 서귀포시까지가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다⁷⁾.

산업화 초기 제주에 온 이주민들 다수는 흉년으로 생계가 어려웠던 에 농어촌 출신자들이었고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고 해상교통로를 통해 제주에 올 수 있었던 호남 출신자들이 많았으며, 이들의 제주이주 동기로는 경제적 동기가 많았고 대부분 자신들이 출신지역에서 갖고 있던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연결망을 통해 섬지역인 제주로 이주해온 경우였다.

이 논문의 조사대상자들과의 심층면접결과에 의하면, 당시 전라도의 농어촌지역에서는 제주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 개발과 감귤산업 등으로 인해 일거리가 많은 땅으로 알려져 있었다. 1990년대까지도 전남지역에서는 겨울철에 밀감 따는

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1, 2015)을 참조바람.

일을 하기 위해 제주를 오는 농업노동인구의 유입이 빈번하다. 전남 지역은 이 시기가 농한기에 해당되므로 제주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제주로 일하러 왔다. 호남 출신으로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거나 밭감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연락해 일하러 제주를 오았다(문순탁·염미경, 2014: 74; 염미경, 2015: 70).

2. 지역정착 초기 집중거주지의 형성과 사회연결망

정부가 제주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항만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막노동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고 제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항은 10여년 이상 날품일터가 끊이질 않았다. 더욱이 1970년대 제주에서 감귤산업이 성장하면서 서귀포에서 재배된 감귤이 육지로 운송되기 위해서는 짐꾼이 필요했고 호남이주민들 상당수가 제주항 주변에 모여 살면서 매일 지게꾼 일을 했다(주희춘, 2008: 336). 따라서 1960, 70년대 제주시는 제주항 주변 건입동에, 서귀포시는 동홍동과 주변 일대에 자연스럽게 호남 출신 이주민들의 집중거주지가 생겨났다(염미경, 2011)⁸⁾.

제주이주 초기 호남사람들의 집중거주지는 호남 출신 이주민들이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찾기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상부상조가 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곳 거주자들은 이곳을 정착지로 여기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상향이동을 위한 경유지로 여겼다. 이와 관련해, 허** 씨는 “해남촌 사셨던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해남촌에 살던

8) 이들 지역을 제주토박이들은 ‘해남촌’ 또는 ‘전라도동산’이라고 불렀는데, 심충면접결과에 의하면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적한 지역으로 빈민가나 마천가지였다고 한다. 이같은 집중거주지는 영구적인 정착지라기보다는 이주 초기 임시 거주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희춘(2008: 343-344)과 염미경(2011)을 참조바람.

분들은 거기 오래 살진 않았어요. 2-3년 또는 3-4년 살다가 돈 벌어서 해남촌을 뜬 사람들이 많아요. (중략) 해남촌은 기반 잡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피난촌 같은 곳이었어요. 아픈 부분이고, 초기 애환이 서려있는 장소라고 말했다(허** 씨와의 심층면접).

이들 호남사람들의 집중거주지는 주민 대다수가 호남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집력이 매우 강했으며, 다수는 단순 직종인 노무업이나 운수업 등에 종사하였다. 주민구성원들은 대체로 젊고 거주 기간도 짧은 편이었다. 일반적으로 도시하위계층의 집적지로서 밀집지역이 생겨나는 것은 초기 이주민들의 경우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향 또는 동족집단과 함께 거주하면서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 현실과 사회문화적 차별 역시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살게 되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주민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밀집지역을 떠나 보다 나은 주거지에 정착하고 싶어 한다. 이는 사회-공간복합체로서의 밀집지역은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힘들에 의해 구성되고 변형되고 재조직되는 살아있는 사회관계의 산물이며, 그 내부의 공간적인 구성과 배치, 즉 공간적 관계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이다(Soja, 1985).

모든 공동체는 특정 공간에 대해 자신들의 기억과 해석을 통해 고유한 정서적 태도를 갖고 있다. 호남인들이 이주 초기 호남인 집중거주지로 들어가려고 한 것은 가족이나 친족 등 혈연망이 없는 경우 학연이나 지연 등 다른 사회연결망을 활용하기 쉽고 이곳이 일거리를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남인 집중거주지는 1970년대 중반, 1980년대를 거치면서 호남인들이 제주에 적응하고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면서 그리고 제주가 관광지로 본격 개발되면서 제주도 행정당국은 이곳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해체되게 된다(황석규, 1985; 염미경, 2011).

제주 정착 초기에 호남 출신 이주민들이 밀집해 살았던 집단거주

지도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호남사람들의 삶의 여건 변화와 지역개발로 인해 이 공간은 해체·사멸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호남인들은 정착 초기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곳에 사는 호남인들과의 교류과정에서 동향인들 간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제주에 정착하기 위한 지연집단을 강화시켜나갔다.

3. 집단적 결집체로서 향우회의 결성과 지역집단화

여기서는 공식적인 지연기반 집단적 결집체인 향우회의 결성과정과 참여 그리고 호남인들이 제주에서 지역집단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사회연결망을 통해 타인과 일차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관계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낀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주민들은 정착 초기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사회에 진입·정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사회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지역사회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거나 확장하면서 새로운 지역의 환경에 적응해나간다. 이주민들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면서 다양한 모임을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향우회이다.

향우회는 처음에는 동향사람들끼리 친목도모와 부조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개인적 연결망으로 출발했다가 점차 그 조직규모나 활동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지역 향우회들도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거쳤다. 제주 이주 초기 이주민들은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그리고 낯선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보교류나 협력 등이 필요해 동향사람들끼리의 친목모임을 만들었다가 점차 연합조직 형태로 발전하는 경로를 거쳤음을 이 논문의 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⁹⁾.

9) 이는 향우회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며, 제주지역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음을 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지역 향우회를

이주지에서 향우회를 결성하는 이유로, ‘고향사람들끼리 타향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서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제주시 호남향우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심층면접일자는 2014년 5월 2일자). 제주에는 다소 성격이 다른 이북5도민연합회 이외에 행정구역별로 향우회들이 조직되어 있다¹⁰⁾. 제주지역 향우회들 중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곳이 제주시 호남향우회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제주에 온 이주민들 중 전라도 출신자가 가장 많은 데서 연유한 것이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기 제주에 와 하층민으로서의 생활경험을 가진 이주1세대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집단적 결집체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시 호남향우회는 1950년대 후반 제주에 와있던 이주1세대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호남동지회’라는 친목회에서 시작해 1969년 호남향우회로 재조직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 후반 몇 명의 호남사람들이 호남친목회를 계(契) 형식으로 발족시켰는데 이것이 제주시호남향우회의 출발이다. 이후 제주에 호남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호남동지회가 결성되었고, 상업, 숙박업, 토건업, 철재, 경찰관, 공업사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1969년 5월 호남향우회로 조직되었다(제주시 호남향우회 내부자료). 서귀포 지역의 전남도민회는 1970년 12월 13일 전남청년회로 시작해 1971년에 첫 정기총회를 개최한 이후 현재에 이르며, 제주지역에서도 회원들 간 집단적 결집력이 매우 강한 향우회이기도 하다(제주지역 향우회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결과 종합).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주지역 향우회 조직의 변화 중 하나는 1990년대 후반부터 회원의 거주지, 즉 동(洞)별 향우회가 결성되었다는 점이다. 동 단위 향우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열고 각 지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순덕·염미경(2014)을 참조바람.

10) 제주지역 향우회 조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염미경·문순덕(2016)을 참조바람.

역 연합도민회 체육행사에 참여한다. 이처럼 향우회 산하에 출신지 별 향우회 이외에 현재 거주지로서 동별 향우회가 조직된 배경은 지방자치제 실시되면서 향우회집단의 정치세력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역 향우회들의 경우 각기 독자적으로 향우회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제주의 행정구역 범위 내에 있는 향우회들 간 협의체로서 연합조직도 구성되어 있다. 즉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 향우회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연합도민회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각각 조직되어 있고, 연합도민회의 회장 임기는 1년이며, 각 향우회 대표가 순번제로 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귀포시지역 연합도민회는 1987년 조직되어 마찬가지로 각 향우회 대표가 순번제로 회장을 맡아오고 있다(염미경·문순덕, 2016).

다른 한편,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산업화시기 제주에 와 정착한 호남인 대부분이 차별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들의 대부분은 제주사회의 하층민으로서 제주생활을 시작해 제주사회의 경제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거쳤다(염미경, 2015: 77-81). 이 과정에서 호남인들은 집단적 결집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산업화시기 호남인들은 이주 당시 낙후된 농어촌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고, 1970년대 이후는 사회구조적 수준의 호남차별이 심화되고 있던 터라 호남인들은 이주지에서 호남차별과 박탈을 예상했고, 이에 대처하는 생존전략으로서 호남인들은 제주에서 높은 수준의 집단적 결집을 해나갔고(최영진, 2001: 472-473), 이것은 제주에서 호남인의 지역집단으로서의 등장을 가속화하는 배경이 되었고, 이는 다시 향우회의 선거 개입과 정치세력화 노력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70, 80년대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제주정착 호남인들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지역토박이가 아닌 데다 초기에 하층민으로 제주생활을 하게 되면서 받은 호남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한 차별과 함께 사회구조적인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이 결합되면서 차별은 최고조에 달한다. 제주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위상이 나아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지방자치

제가 실시되면서부터다(염미경, 2015: 82).

지역주의는 지역에 대한 의식, 인식 또는 감정 등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하나의 신념체계이자 지역을 중심으로 집합적 의식의 형태를 지향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최영진, 1997; 정병은, 2007: 7). 출신지역의 생활방식이나 신념, 가치관, 문화, 정치적 태도 등을 간직하고 있는 이주1세대는 출신지역에서의 정치적 신념과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출신지역을 떠나왔지만 자신의 출신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고 출신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한다. 이러한 성향은 정착지에서의 정치적 태도나 활동에도 반영되어 출신지역의 정치와 정착지역의 정치 양쪽에 영향을 준다. 이는 한국의 정치활동이 여전히 지역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염미경, 2015).

산업화시기 제주에 와 하층민으로서 생활과 차별받은 경험을 갖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제주이주1세대들은 사적인 관계 속에 영위된 자신들의 공동체를 양성화시킨 형태로 향우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의 집단적 결집과 지역집단화 그리고 사회·정치적 세력화는 그들의 생존 그 자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국 대부분의 향우회가 그렇듯, 제주지역의 향우회 집행부도 세대교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주1.5세대와 2세대, 특히 2세대는 부모세대와 달리 출신지와 거주지가 같은데다가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제주에 온 1.5세대의 경우도 제주에서 유년,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주1세대와 같이 출신지역에 기반한 정당 지지성향이나 그 정당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제주에서 태어났거나 제주에서 성장한 1.5세대와 2세대는 제주에서 생활하는 데 지역토박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도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 지역 향우회 집행부의 세대교체와 회원구성의 변화 그리고 과거 향우회의 선거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여론이 생기면서 지역향우회의 지역활동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지역향우회들은 집행부나 회원 구성에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논문의 조사대상 향우회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다.

IV. 맺음말

변방이지만 과거 희망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간주되던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의 지역정착과 사회연결망을 이주민공동체의 형성과 향우회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 논문은 이주지의 공식기록에서 배제되거나 누락된 지역의 역사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 논문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면서 끝맺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의 연구결과 제주가 국제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하면서 막노동 등 날품일터가 생겨나고 감귤산업이 성장하면서 서귀포에서 재배된 감귤의 육지 운송을 위한 관문인 제주항 부근에 밀집해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호남인 집중거주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민들은 이주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토박이들의 폐쇄성에 의해 지연을 바탕으로 한 동향 출신자들끼리 밀집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착 초기 경제적 도움과 상부상조 그리고 친선도모를 위해 또는 열악한 경제적 현실과 사회문화적 차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동향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집중거주지를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는 사회연결망이 호남인의 제주정착 초기 중요한 자원이었음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전통적으로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한 애착과 이주지에서의 애환 등 정서적 욕구 충족 기제 역할을 한 것이 향우회였고, 제주정착과정에서 호남인들은 지역토박이가 아닌 테서 받는 차별과 함께 지역주의가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면서 받은 차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집단적 결집력으로 대응해나갔으며, 그 기반이 향우회였음을 이 논문의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을 다룬 연구이지만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과거 산업화시기 이주민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 국내외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에서 이들에 대한 분석과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논문은 제주지역 전체 이주민들의 지역 집단화와 집단적 결집체로서 향우회의 활동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이주민들은 이주 시기와 개인의 나이, 학력, 직업 경험, 경제적, 정보력, 인적 자본 측면에서 이주민들 간은 물론 지역토박이들과 다를 수 있고, 이를 지역토박이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도 이 논문의 한계이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이주민들과 지역토박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그 양상을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주민들이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사회연결망을 통해 경제적 도움, 일자리, 정보 등의 사회자본을 어떻게 활용하여 이주지에 정착해 가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논저

- 강경주, 2012, 「재인 충남인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충남 향우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태환·홍두승·설동훈, 2006, 『사회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 김용학, 2011, 『사회연결망분석』, 박영사.
- 문순덕·염미경, 2014, 『제주 이주민의 지역 정체성 정립에 관한 기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박찬식, 2010, 「한국전쟁과 제주지역사회의 변화: 4.3사건과 전쟁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27, 81-106.
- 양정심, 2009, 「한국전쟁기 제주지역사회의 변동」, 『사학』 33, 121-154.
- 염미경·문순덕, 2016, 「산업화시대 이주자 공동체로서 향우회의 역할과 변화」, 『한국민족문화』 61, 81-119.
- 염미경·한상희, 2014,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의 특성 분석과 중학교 지역학습 자료의 구성」, 『시민교육연구』 46(2), 155-200.
- 염미경, 2011,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제주도연구』 35, 1-38.
- , 2015, 「산업화시기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6(1), 49-90.
- , 2016, 「이주민과 제주사회 함께 살아가기」, 『평화, 여성, 미래: 제주사회 평화 실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2주년 기념 여성·가족정책 국제포럼 자료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1-76.
- 유석춘·장미혜, 1999,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부문과 사회발전: 연고집단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10(2), 121-144.
- , 2003, 「한국사회와 사회자본」,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편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 15-57.
- 유석춘·장미혜·김태은, 2000, 「동아시아의 연고집단과 세계화」, 유석춘 편저,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109-147.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사상』 37, 65-93.
- , 2001, 「의리인가 계약인가?: 인격주의와 개인주의 갈등적 공존과 한국 사회의 제 문제」, 석현호·유석춘 편, 『현대 한국사회 성격 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83-100.

- 이재열·남은영, 2008,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 42(7), 178-214.
- 이창기, 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 이화진, 2016,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정병은, 2007, 「향우회 사회자본과 지역주의: 재경안동향우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3), 331-358.
- 최영진, 1997, 「한국 지역주의 논의의 새지평: 정치적 정체성 개념과 동기부여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자료집』, 135-155.
- 최재석, 1997,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 Bian, Y. & Ang, S., 1997, "Guanxi networks and job mobility in China and Singapore," *Social Forces* 75, 981-1006.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De Graaf, N. D. & Flap, H. D., 1988,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Social Forces* 67(2), 452-472.
- Faist, T.,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ditional Social Spa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sung, Ray-May & Sun, Ching-Shan, 1988, *Social Resources and Social Mobility: Manufacturing Employees*, Tiwan: National Science Council.
- Lake, R. L. D., & Huckfeldt, R., 1998,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Psychologist* 53: 567-584.
- Lee, Sunhwa & Brinton, M. C., 1996, "Elite education and social capital: The case of South Korea," *Sociology of Education* 69(3): 177-192.
- Lin, N., 1999, "Social networks and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467-488.
- Lin, N., Walter M. E. & Vaughn, J. C., 198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 August), 396-406.

Masden, P. V. & Hulbert, J. S., 1988, "Social resources and mobility outcom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Forces 66(4): 1038-1059.

Meyerson, E. M., 1994,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compensation: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social contacts to managers' incomes," Acta Sociologica 37, 383-399.

2. 홈페이지

영남도민회 홈페이지(<http://youngnamj.com>)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www.kosis.kr)

Abstract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Regional Settlement of Jeju Migrants and Social Network

Yeum, Mi-Gyeong*

This paper examined the organizational process and changes of Hyangwoohoe as a kind of social networks based in hometown through case, Jeju. For the research methods, the opinions from the members of Jeju migrant's community associations and the persons interested in each Jeju migrant's community association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e found that the first generation of immigrants to leave the birth home lives to settle in new areas are adapted to the settlements while strengthening a sense of community to stand mediating the home through direct exchanges with the homeland, but also through the various events of hometown. Next, the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ing role of local hometown through the Jeju practice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Hyangwoohoe was a mechanism for emotional, social and economic adaptation to a new area. Next, migrants tended to migrate an intact even in terms of political beliefs and their attitude in terms hometown area. However, as recently hyangwoohoe replaced three executives, the political activities of hyangwoohoe are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the pursuit of benefit. Finally, there is a voice that concern the viability of hyangwoohoe. In these circumstances hyangwoohoe is trying to

* Jeju National University

emphasize the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through various events and enable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by creating the youth group in hyangwoohoe. Also hyangwoohoe is doing efforts to attract new immigrants and members of hyangwoohoe can see that expanding its activities to communities where they live.

Key Words : industrialization period, home-mediated social network, Hyangwoohoe (hometown community association), migrants, Jeju

교신: 엄미경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E-Mail: mgyeum@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8. 01. 15.

심사완료일: 2018. 02. 02.

게재확정일: 2018. 02. 05.